해외 ICT 표준화 동향

2017. 02

3rd week

목차

본문 1. MICRON, 버스 인터페이스 표준 컨소시엄(Xccela™) 발족
2. 美 상무부, 사물인터넷 녹서(Green Paper) 발표

기타소식 - AMA·DHX·HIMSS·AHA, 모바일 건강 앱 평가를 위한 연합 결성

* 게시물 보기

TTA 홈페이지 ▷ 자료마당 ▷ TTA 간행물 ▷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

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

1. MICRON, 버스 인터페이스 표준 컨소시엄(Xccela™) 발족

(Micron Launches Xccela™ Consortium to Promote High-Speed, Low Signal Count Octal Interface Bus and Ecosystem)

보도날짜 2016.12.15.

출 처 Nasdaq

사 이 트 https://globenewswire.com/news-release/2016/12/15/897979/0/en/Micron-Launches-Xccela-Consortium-to-Promote-High-Speed-Low-Signal-Count-Octal-Interface-Bus-and-Ecosystem.html

■ 2016년 12월 15일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(Micron Technology)[1]는 Xccela 버스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을 위한 Xccela™ 컨소시엄 발족

- Xccela™ 컨소시엄은 Xccela 버스 인터페이스를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와 기타 유형의 집적회로(MCU, SoC, ADC 등)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의 데이터 상호연결 및 데이터 통신 버스의 공개표준으로 개발하기 위함임

- 이번 컨소시엄의 초기회원은 Micron, 윈본드(Winbond, 대만 전자기업), 기가디바이스(GigaDevice, 중국 플래쉬 메모리 제조업체), AP Memory Technology(대만 메모리 제조업체) 등으로, 현재 다른 회원사와 협력하여 시장에 Xccela 버스 호환 메모리, 컨트롤러, ASIC, SoC 및 다른 장치를 개발에 노력할 것임

■ 마이크론은 버스(Bus) 및 각종 지원 장치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가속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이전에 발표한 XTRMFlash™와 XTRMBus™의 명칭을 Xccela™ Flash와 Xccela™ Bus로 변경함

- 오늘날 스마트폰 등장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, 펌웨어, 소프트웨어 실행 등에 데이터 처리 및 저장을 위한 고성능 버스가 필요함

- Xccela은 현재의 버스 인터페이스가 고성능의 하이 핀 카운트 병렬 인터페이스(high pin-count parallel interface) 또는 직렬 인터페이스의 작은 활성 신호 풋프린트(small active signal footprint of a serial interface)와 같이 성능과 풋프린트 간의 절충이 요구되어 개발되었음

■ Xccela 버스는 성능의 개선과 작은 신호 카운트를 결합한 차세대 버스로, 첫 반복 작업에서 불과 11개 활성 버스 신호를 이용하여 최대 400MB/s(3.2Gbps)의 데이터 전송을 촉진하여 단순한 시스템 설계로도 빠른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함

1) 마이크론 테크놀로지(Micron Technology) : 19778년 5월 미국 아이다호 보이시에 설립된 DRAM, NAND, NOR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개발 기업임.(출처: www.micron.com)

2. 美 상무부, 사물인터넷 녹서(Green Paper) 발표

(Everything wrong with IoT (and how to fix it) – according to Uncle Sam)

보도날짜 2017.1.13.

출 처 The register

사 이 트 http://www.theregister.co.uk/2017/01/13/us_dept_commerce_internet_of_things_green_paper/

■ 2017년 1월 12일, 미국 상무부(Department of Commerce)는 사물인터넷 관련 녹서(Green paper)를 발표[1]함

- 이번 녹서는 2016년 4월 '사물인터넷의 혜택, 문제, 기술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'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으며, 미국 정부는 기업, 시민사회 및 기술 커뮤니티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구했음

- 이에 미국의 사물인터넷 기술의 공식적인 정부 정책의 첫 단계로, 관련 기업, 옹호단체 및 이해관련자들이 주목하는 IoT의 주요 이슈와 장단점, 그리고 연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포함함

■ 美 상무부의 사물인터넷 녹서(Green Paper)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요약

- 미국 정부 부처 간 협력 : 미국의 다양한 정부부처가 IoT를 얻기 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 부처 간 파트너가 되어야 함

- 폭넓은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책이 개발됨 : 상무부는 멀티스테이크홀더(multi stake holder)라는 시민 사회와 기술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이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결정 접근 방식을 옹호하며, IoT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채택될 것임

- 특별한 것이 아님 : 사물인터넷(IoT)은 고유의 가능성(possibility)을 제공하지만 기존 IoT 시스템 및 프로세스는 그 어떤 새로운 도전도 처리하기에 충분함

- IoT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가 없음 : IoT에 대한 정책은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이상적 정책이 아님. 이에, 이번 녹서는 점차 증가하는 많은 장치들은 인터넷 또는 다른 무언가와 연결된 기술 개발을 언급하는 포괄적 용어로 사물인터넷(IoT)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임

- 규제는 부정적임 : 미국 정부는 IoT에 규제하지 않아야 함

1) 녹서 원문 : https://www.ntia.doc.gov/files/ntia/publications/iot_green_paper_01122017.pdf

- IoT의 다양한 매력 : IoT 산업 및 소비자와 같은 IoT 관련 많은 부분들은 함께 융합되기에 유용하며 스마트 도시 기술 또한 꽤나 훌륭함

- IPv6가 필요함 : 인터넷에 수십억가지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로 전환해야 함

기타 소식

AMA·DHX·HIMSS·AHA, 모바일 건강 앱 평가를 위한 연합 결성

▶ 출처 : https://www.ama-assn.org/alliance-forms-develop-guidelines-evaluation-mhealth-apps (2016.12.12.)

○ 2016년 12월 12일, AMA(미국의사협회), DHX(비영리디지털건강혁신기구), HIMSS(건강정보관리시스템협회), AHA(미국심장협회) 4개 기관은 모바일 건강 애플리케이션의 품질, 안정성, 효과성에 대한 개선 정도를 파악하는 연합인 엑서티아(Xcertia) 결성

- 엑서티아는 모바일 건강 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앱 개발 및 큐레이션에 활용되도록 알릴 예정임